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02-338-2890 ksvrc@sisters.or.kr)
제 목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9. 2. 26. (총 22쪽)

보도협조요청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I. 2018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	2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93.4%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5% -----	3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전체 가해자의 90.2%가 남성, 이중 성인은 74.4% -----	3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본인이 직접상담 63.9%, 대리인 상담 36.1% -----	4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모든 연령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5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0.2% -----	6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6.5% -----	7
8. 상담원 지원내용 -----	7
II. 2018년 세부 상담 통계 분석	
1. #미투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	8
2.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 세부 통계 및 분석 -----	11
3. 직장 내 성폭력 상담 세부 통계 및 분석 -----	14
4. 역고소 상담 세부 통계 및 분석 -----	16
III. 2018년 의료비 지원 현황	
1.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	18
2. 의료 기관별 지원 규모 -----	18
3. 2018년 피해유형별 의료비 지원 현황 -----	19
4. 의료지원대상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	20
5. 1인당 누적 의료비 지원 규모 -----	21
6. 피해 경과 기간 -----	21
IV. 소결 -----	22

I.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8년 동안 총 83,806회의 상담을 해왔다. 2018년 전체상담은 1,940회(1,359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762회(1,189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7.5%이다. 2018년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본 상담소의 전화 상담은 1회선으로 한 건의 상담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오래전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상담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상담 건수에 제약이 있는 점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2018년에는 전화 상담번호가 통화 중이어서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나, 통화 중인 전화 상담번호가 아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다른 상담소로 안내하는 상황이 많았다.

1. 연도별 상담현황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총	83,806	55,807	46,928	84.0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4%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5%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1,189건 중 1,110건(93.4%)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피해자로, 총 848건(71.3%)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도 평균 5% 선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77건(6.5%)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8 (0.7)	848 (71.3)	123 (10.3)	73 (6.1)	21 (1.8)	37 (3.1)	1,110 (93.4)
남	0 (0.0)	54 (4.5)	11 (0.9)	10 (0.8)	0 (0.0)	2 (0.2)	77 (6.5)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2 (0.2)
총계	8 (0.7)	902 (75.9)	134 (11.3)	83 (7.0)	21 (1.8)	41 (3.4)	1,189 (10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0.2%가 남성, 이중 성인은 74.4%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건수 1,189건 중 성인 남성 가해자가 885건(74.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1,189건 중 1,073건(90.2%)을 차지하였다.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 (0.1)	58 (4.9)	5 (0.4)	4 (0.3)	0 (0.0)	4 (0.3)	72 (6.1)
남	34 (2.9)	885 (74.4)	88 (7.4)	15 (1.3)	1 (0.1)	50 (4.2)	1,073 (90.2)
미상	0 (0.0)	13 (1.1)	2 (0.2)	0 (0.0)	0 (0.0)	29 (2.4)	44 (3.7)
총계	35 (2.9)	956 (80.4)	95 (8.0)	19 (1.6)	1 (0.1)	83 (7.0)	1,189 (10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0명 중 64명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100명 중 36명은 대리인이 상담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60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전체의 36.1%를 차지하였다. 대리인 상담에서는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웃·친구와 직장이 뒤를 이었다.

대리인 상담에서 데이트 상대가 상담하는 경우는 2011년, 2012년 전체 대리인 상담 건수 중 7%대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10%대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2.8%로 감소하였다.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단위: 건(%)>

전체상담 건수	본인	대리인 429(36.1)									본인/ 대리인 (합계 상담)	미상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 · 단체	변호사	기타		
1,189 (100.0)	760 (63.9)	187 (15.7)	33 (2.8)	74 (6.2)	49 (4.1)	24 (2.0)	3 (0.3)	16 (1.3)	3 (0.3)	16 (1.3)	24 (2.0)	- (0.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 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480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339건, 28.5%)이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3 (0.3)	4 (0.3)	-	-	-	7 (0.6)	339 (28.5)
	강간 (유사강간포함)	3 (0.3)	147 (12.4)	38 (3.2)	27 (2.3)	3 (0.3)	6 (0.5)	224 (18.8)	
	준강간	-	83 (7.0)	6 (0.5)	-	-	-	89 (7.5)	
	강간미수	1 (0.1)	15 (1.3)	3 (0.3)	-	-	-	19 (1.6)	
강제 추행	강제추행	2 (0.2)	327 (27.5)	47 (4.0)	48 (4.0)	15 (1.3)	12 (1.0)	451 (37.9)	480 (40.4)
	준강제 추행	1 (0.2)	25 (2.1)	3 (0.3)	-	-	-	29 (2.4)	
성희롱		-	162 (13.6)	16 (1.3)	1 (0.1)	1 (0.1)	4 (0.3)	184 (15.5)	
통신매체이용음란		-	19 (1.6)	3 (0.3)	-	-	1 (0.1)	23 (1.9)	
카메라이용촬영		-	42 (3.5)	6 (0.5)	-	-	3 (0.3)	51 (4.3)	

스토킹	1 (0.1)	26 (2.2)	-	-	-	-	27 (2.3)
음화등의 제조유포	-	2 (0.2)	-	-	-	-	2 (0.2)
부부강간	-	1 (0.1)	-	-	-	-	1 (0.1)
미상	-	50 (4.2)	8 (0.7)	7 (0.6)	2 (0.2)	15 (1.3)	82 (6.9)
성폭력 계	8 (0.7)	902 (75.9)	134 (11.3)	83 (7.0)	21 (1.8)	41 (3.4)	1,189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0.2%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가해자가 954명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다.

<표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가해자 연령						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미수	특수강간	-	2 (0.2)	3 (0.3)	-	-	2 (0.2)	7 (0.6)	339 (28.5)
	강간 (유사강간포함)	4 (0.3)	183 (15.4)	21 (1.8)	2 (0.2)	-	14 (1.2)	224 (18.8)	
	준강간	-	84 (7.1)	4 (0.3)	-	-	1 (0.1)	89 (7.5)	
	강간미수	1 (0.1)	18 (1.5)	-	-	-	-	19 (1.6)	
강제추행	강제추행	20 (1.7)	360 (30.3)	38 (3.2)	13 (1.1)	1 (0.1)	19 (1.6)	451 (37.9)	480 (40.4)
	준강제추행	-	26 (2.2)	3 (0.3)	-	-	-	29 (2.4)	
성희롱		6 (0.5)	155 (13.0)	12 (1.0)	3 (0.3)	-	8 (0.7)	184 (15.5)	
통신매체이용음란		1 (0.1)	16 (1.3)	3 (0.3)	-	-	3 (0.3)	23 (1.9)	
카메라이용촬영		-	41 (3.4)	5 (0.4)	-	-	5 (0.4)	51 (4.3)	
스토킹		1 (0.1)	23 (1.9)	1 (0.1)	1 (0.1)	-	1 (0.1)	27 (2.3)	
음화등의 제조유포		-	-	1 (0.1)	-	-	1 (0.1)	2 (0.2)	
부부강간		-	1 (0.1)	-	-	-	-	1 (0.1)	
미상		2 (0.2)	45 (3.8)	4 (0.3)	-	-	31 (2.6)	82 (6.9)	
성폭력 계		35 (2.9)	954 (80.2)	95 (8.0)	19 (1.6)	1 (0.1)	85 (7.1)	1,189 (10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6.5%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29건(86.5%)으로 가장 많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42건(37.9%)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3건(24.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27건(20.2%)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47건(56.6%), 13건(6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유형 계	아는 사람 1029(86.5)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130(10.9)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인 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2015년	166 (12.7)	21 (1.6)	336 (25.7)	135 (10.3)	42 (3.2)	72 (5.5)	55 (4.2)	150 (11.5)	23 (1.8)	80 (6.1)	11 (0.8)	19 (1.5)	119 (9.0)	79 (6.0)	1,308 (100.0)
2016년	118 (8.7)	19 (1.4)	368 (27.2)	141 (10.4)	43 (3.2)	63 (4.7)	78 (5.8)	160 (11.8)	35 (2.6)	102 (7.5)	11 (0.8)	40 (3.0)	101 (7.5)	74 (5.5)	1,353 (100.0)
2017년	121 (9.6)	22 (1.7)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0)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7.3)	1189 (100.0)
고령	-	1 (12.5)	-	-	-	4 (50.0)	1 (12.5)	-	-	-	-	1 (12.5)	1 (12.5)	-	8 (100.0)
성인 (20세 이상)	18 (2.0)	19 (2.1)	342 (37.9)	77 (8.5)	36 (4.0)	39 (4.3)	52 (5.8)	89 (9.9)	21 (2.3)	53 (5.9)	12 (1.3)	33 (3.7)	59 (6.5)	52 (5.8)	902 (100.0)
청소년 (19세-14세)	17 (12.7)	10 (7.5)	8 (6.0)	8 (6.0)	3 (2.2)	12 (9.0)	4 (3.0)	33 (24.6)	12 (9.0)	6 (4.5)	1 (0.7)	3 (2.2)	9 (6.7)	8 (6.0)	134 (100.0)
어린이 (13세-8세)	20 (24.1)	27 (32.5)	-	-	1 (1.2)	6 (7.2)	2 (2.4)	12 (14.5)	3 (3.6)	4 (4.8)	-	-	3 (3.6)	5 (6.0)	83 (100.0)
유아 (7세 이하)	6 (28.6)	7 (33.3)	-	-	-	4 (19.0)	-	-	3 (14.3)	-	-	-	-	1 (4.8)	21 (100.0)
미상	3 (7.3)	2 (4.9)	3 (7.3)	1 (2.4)	1 (2.4)	-	1 (2.4)	2 (4.9)	-	3 (7.3)	-	3 (7.3)	1 (2.4)	21 (51.2)	41 (100.0)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18년 상담을 의뢰받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법적지원이 723건(60.8%)으로 가장 높았다. 예년에는 심리·정서지원이 가장 높은 지원내용이었는데 2018년에는 법적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미투운동으로 법적고소를 문의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상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정서 지원은 710건(59.7%)이었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컴퓨터연계는 컴퓨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며 기타는 피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하거나 기타 치유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권한 경우이다.

<표8. 피해자 지원내용>

<단위: 건(%)> (중복표기)

전체지원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1,189 (100.0)	723 (60.8)	16 (1.3)	56 (4.7)	710 (59.7)	-	79 (6.6)
		72 (6.0)				

II. 2018년 세부 상담 통계 분석

1. #미투 상담 통계 분석

미투운동은 2018년 1월 말 검찰 내 성폭력 피해 폭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각계에서 성폭력이 SNS로 공론화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변인들이 생기며 성폭력 피해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며 함께하면 힘이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미투운동이 발화되는 불씨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들의 명예훼손과 무고죄 역공, 펜스를 끝까지 강하게 대두되었다. 2018년 미투상담은 전체 상담 1,189건 중 181건(15.2%)으로, 분석대상은 피해자가 미투를 언급하며 상담을 하였거나 지난 피해를 말하지 못하다가 최근 미투운동을 보며 용기를 내거나, 그 이전에는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피해를 인식하게 된 상담 등으로 분류하였다.

1-1. 미투상담의 성별 및 연령별 통계

<표9. 미투상담 피해자성별 및 연령별>를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상담에서는 성인시기의 피해가 76.5%였으나 미투상담의 경우는 성인시기의 피해가 59.1%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청소년기에는 11.3%에서 13.8%로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 7%에서 20.5%로 3배 이상 높아져 미투상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기도 2배로 증가하였다.

미투상담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피해 당시 어린이였을 때의 상담비율이 전체상담과 비교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피해를 겪은 피해생존자들이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9. 미투상담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단위: 건(%)>

성별 \ 연령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미만)	미상	총계
여	100 (55.2)	24 (13.3)	31 (17.1)	6 (3.6)	6 (3.6)	167 (92.8)
남	6 (3.0)	1 (0.6)	6 (3.0)	-	-	13 (6.6)
미상	1 (0.6)	-	-	-	-	1 (0.6)
총계	107 (59.1)	25 (13.8)	37 (20.5)	6 (3.6)	6 (3.6)	181 (100.0)

1-2. 피해유형별 미투상담 통계

2018년 전체 유형별 상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강간 피해가 28.6%를 차지하였다. 미투 상담의 경우는 강제추행이 51.4%로 전체상담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강간도 33.7%로 전체 상담건수 전체 대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미투운동을 언급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등의 피해호소는 거의 없었는데, <표11. 피해 경과 기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피해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상담이 42.4%인 것으로 보아 미투 상담 피해자의 피해 당시에는 요즘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디지털 문화가 발달 되지 않아 해당 피해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10. 피해유형별 통계>

<단위:건(%)>

피해유형 비교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음화등의 제조유포	미상	총계
2018년	<u>340</u> (28.6)	<u>480</u> (40.4)	185 (15.5)	23 (1.9)	51 (4.3)	27 (2.3)	2 (0.2)	82 (6.9)	1,189 (100.0)
미투	<u>61</u> (33.7)	<u>93</u> (51.4)	10 (5.5)	-	1 (0.6)	-	-	16 (8.8)	181 (100.0)

1-3. #미투 경과 통계

#미투하기까지의 경과 기간은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도 48건(26.5%)였다. 10년 이상인 경우 오래 전 피해를 #미투 운동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고 다시금 문제제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회복과정이 오랫동안 지속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피해 회복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미투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운동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을 넓히기도 하였다.

<표11. 피해 경과 기간>

<단위:건(%)>

경과 기간 건수	1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상
181 (100.0)	24 (13.3)	48 (26.5)	30 (16.6)	<u>75 (41.4)</u>	4 (2.2)

1-4. 미투상담의 의뢰인 분석

2018년 전체 상담에서의 의뢰인이 본인인 경우는 63.9%에 반해 미투 상담에서의 본인이 의뢰한 경우는 86.2%로 전체 상담 대비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전체 상담에서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경우는 2016년 56%, 2017년 58.3% 2018년 63.9%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특히 2018년에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미투상담이 전체 상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피해 이후 대응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다가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용기를 내어 직접 피해를 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숨기거나 부끄러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이며 #미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12. 의뢰인별 상담통계>

<단위:건(%)>

관계 비교	본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 (함께)	미상	총계
		가족	데이트 상대	이웃 친구	직장	학교 학원	사회복 지기관	기관 단체	변호사	기타			
2018 전체	760 (63.9)	187 (15.7)	33 (2.8)	74 (6.2)	49 (4.1)	24 (2.0)	3 (0.3)	16 (1.3)	3 (0.3)	16 (1.3)	24 (2.0)	0 (0.0)	1,189 (100.0)
미투	156 (86.2)	13 (7.2)	1 (0.6)	3 (1.7)	4 (2.2)	2 (1.1)	0 (0.0)	1 (0.5)	0 (0.0)	1 (0.5)	0 (0.0)	0 (0.0)	181 (100.0)

1-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표13. 미투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상담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족 및 친족외 인척의 경우가 10.9%인데 반해, 미투 상담의 경우 28.1%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투상담의 친족에 의한 피해가 모든 연령에서 높아졌고 나이가 어릴수록 친족에 의한 피해의 비율도 함께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겪은 피해가 전체 상담에서는 9.9%인데 반해 미투상담은 18.0%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학원 내에서는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은 피해가 전체상담에서는 2.3%인데 반해 미투상담에서는 6.6%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피해자의 경우 대학교와 학원내에서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겪은 피해에 있어서의 미투상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마찬가지로 친족 및 친족외 인척의 피해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 친족으로부터 겪은 피해가 전체상담에서 24.1%인데 반해 미투상담에서는 62.2%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아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친족 피해가 여전히 높은 비율 66.7%를 보였다.

<표13. 미투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건(%)>

연령	관계	아는 사람 117(64.6)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51(28.1)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인 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미투상담	43 (23.7)	8 (4.4)	42 (23.2)	3 (1.7)	2 (1.1)	8 (4.4)	6 (3.3)	31 (17.1)	9 (5.0)	7 (3.9)	2 (1.1)	7 (3.9)	4 (2.2)	9 (5.0)	181 (100.0)	
성인 (20세이상)	6 (5.6)	2 (1.9)	39 (36.0)	3 (2.8)	1 (0.9)	5 (4.7)	6 (5.6)	20 (18.0)	7 (6.6)	5 (4.7)	2 (1.9)	6 (5.6)	1 (0.9)	4 (3.7)	107 (100.0)	
청소년 (19세~14세)	8 (32.0)	3 (12.0)	2 (8.0)	0 (0.0)	1 (4.0)	0 (0.0)	0 (0.0)	5 (20.0)	2 (8.0)	0 (0.0)	0 (0.0)	0 (0.0)	3 (12.0)	1 (4.0)	25 (100.0)	
어린이 (13세~8세)	23 (62.2)	3 (8.1)	0 (0.0)	0 (0.0)	0 (0.0)	1 (2.7)	1 (2.7)	5 (13.5)	1 (2.7)	1 (2.7)	0 (0.0)	0 (0.0)	0 (0.0)	2 (5.4)	37 (100.0)	
유아 (7세이하)	4 (66.7)	0 (0.0)	0 (0.0)	0 (0.0)	0 (0.0)	2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미상	2 (33.2)	0 (0.0)	1 (16.7)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1 (16.7)	0 (0.0)	1 (16.7)	0 (0.0)	0 (0.0)	6 (100.0)	

1-6. 미투상담 피해자의 이전 대응내용 및 현재 요청내용

미투 상담 피해자들이 상담 이전에 대응했던 내용은 전체 100건 중 주변인의 도움 요청이 35건 (35%)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경우도 27건(27%)이었다. 그 다음은 법적 대응 18건(18%) 순으로 대응하였고 현재의 요청내용은 형사적 대응 111건(40.6%), 심리 상담 지원이 91건(33.3%)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주변인들의 도움과 사과 요구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미투운동을 보며 자신도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4. 이전 대응방법> (중복표기)

<단위: 건(%)>

의료기관	법적대응	기관	주변인 도움요청	사과요구	기타	총계
3 (3.0)	18 (18.0)	6 (6.0)	35 (35.0)	27 (27.0)	11 (11.0)	100 (100.0)

<표15. 피해자 요청내용> (중복표기)

<단위: 건(%)>

법적대응		의료지원	심리상담	대응방안		피해보상 /합의	성폭력의 사건의해 결	기타	총계
형사	민사			소속조직내	개인적대응				
111 (40.6)	13 (4.8)	5 (1.8)	91 (33.3)	12 (4.4)	19 (7.0)	4 (1.5)	2 (0.7)	16 (5.9)	273 (100.0)

2.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 세부 통계 및 분석

2018년 전체 성폭력 상담 총 1,189건 중 피해 당시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209건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에 총 17.6%에 해당된다. 피해 당시 술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이나 추행을 행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도록 되어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운영을 함께 한 클럽 내에서의 준강간 피해에 의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 당시 약물이나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특수장간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 상담 통계 중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에 대한 세부 통계 분석 대상은 피해유형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표기되었거나 주 피해유형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표기되지 않았어도 피해 당시 술이 매개된 상담 건수로 파악하였다.

2-1. 피·가해자 연령 및 성별 구분

<표16.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자 연령 및 성별 구분>과 <표17.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가해자 연령 및 성별 구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98.6%는 여성이고, 전체 피해자 중 청소년의 비율은 7.7%에 해당하였다. 이에 반해 가해

자의 98.1%는 남성이었고, 이중 고령을 포함한 성인 남성이 가해자인 상담은 93.7%에 해당하였다.

<표16.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자 연령 및 성별 구분>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총계
여	190 (90.9)	16 (7.7)	206 (98.6)
남	3 (1.4)	-	3 (1.4)
총계	193 (92.4)	16 (7.7)	209 (100.0)

<표17.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가해자 연령 및 성별 구분>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미상	총계
여	3 (1.4)	1 (0.5)	-	4 (1.9)
남	193 (92.3)	9 (4.3)	3 (1.4)	205 (98.1)
총계	196 (93.7)	10 (4.8)	3 (1.4)	209 (100.0)

2-2. 피해 유형별 피해자 연령

<표18. 피해 유형별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 연령 전체에서 모두 강간 피해가 가장 높았다. 성인 피해의 경우에는 54.1%, 청소년 피해의 경우 4.3%에 해당하는 피해가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피해로,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모든 연령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술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에는 강간 피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18.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자 연령>

<단위: 건(%)>

피해유형	연령	피해자 연령		
		성인	청소년	계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1 (0.5)	2 (1.0)	3 (1.4)
	강간 (유사강간포함)	113 (54.1)	9 (4.3)	122 (58.4)
	강간미수	3 (1.4)	-	3 (1.4)
강제추행		61 (29.2)	4 (1.9)	65 (31.1)
성희롱		6 (2.9)	1 (0.5)	7 (3.3)
카메라이용촬영		2 (1.0)	-	2 (1.0)
스토킹		1 (0.5)	-	1 (0.5)
음회등의 제조유통		1 (0.5)	-	1 (0.5)
미상		5 (0.2)	-	5 (0.2)
성폭력 계		193 (92.4)	16 (7.7)	209 (100.0)

2-3. 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

<표19.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가 63건(3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내에서 알게 된 사람 29건(15.0%)였으며, 주변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경우도 24건(12.4%)로 나타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인 경우 학교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가 5건(31.3%)로 가장 높았고, 동네 사람에 의한 피해도 3건(18.8%)으로 나타났다.

<표19.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연령별 관계	친/인척	직장	친밀한	인터넷	동네	서비스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성인 (20세 이상)	-	63 (32.6)	7 (3.6)	7 (3.6)	19 (9.3)	7 (3.6)	29 (15.0)	5 (2.6)	24 (12.4)	5 (2.6)	5 (2.6)	16 (8.3)	7 (3.6)	193 (100.0)
청소년 (19세-14세)	-	1 (6.3)	1 (6.3)	-	3 (18.8)	-	5 (31.3)	2 (12.5)	1 (6.3)	-	-	2 (12.5)	1 (6.3)	16 (100.0)

2-4. 피·가해 시 특성 (중복)

<표20.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 시 특성>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특성을 살펴본 것인데, 피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응답한 상담 건수는 중복 응답 건수 총 219건 중 198건(90.4%)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물까지 사용되었다고 응답한 상담도 6건(2.7%)이었다. 술에 취해 수면 상태일 때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2건(5.5%)으로 술을 마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했다. 술을 매개로 한 상담 중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상담은 2건이었고, 피해자가 외국인이 상담도 1건 있었다.

<표20.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시 특성>

<단위: 건(%)>

구분	술	약물	수면	장애	외국인	전체
건수	198 (90.4)	6 (2.7)	12 (5.5)	2 (0.9)	1 (0.5)	219 (100.0)

<표21.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가해 시 특성>은 가해자의 상태 및 특성을 살펴본 것인데, 가해 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상담은 중복 응답 건수 총 156건 중 138건(88.5%)에 해당하였고, 가해자가 외국인 경우는 4건(2.6%), 다른 가해자가 존재했던 사례는 13건(8.3%)이었다. 가해자가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도 1건(0.6%) 있었다.

<표21.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가해시 특성>

<단위: 건(%)>

구분	술	외국인	다른 가해자 존재	다른 성범죄 전력	전체
건수	138 (88.5)	4 (2.6)	13 (8.3)	1 (0.6)	156 (100.0)

3. 직장 내 성폭력 상담 세부 통계 및 분석

2018년 직장 내 성폭력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 1,189건 중 353건으로 29.7%에 해당된다.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성인인 경우,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은 주로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피해를 겪으며 고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즉각 알리지 못하거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직/공동체 내에서 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 비난의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분석 대상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353건이었다.

3-1. 피·가해자 성별 및 연령별 구분

<표 22.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구분>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 중 성인 피해자가 311건(88.1%)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성인 남성 피해자도 31건(8.8%)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과 비교했을 때 남성 피해자의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 피해자도 8건(2.2%)이 되어 아르바이트 현장이나 현장실습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구분>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미상	총계
여	311 (88.1)	7 (2.0)	3 (0.8)	321 (90.9)
남	31 (8.8)	1 (0.3)	-	32 (9.1)
총계	342 (96.6)	8 (2.2)	3 (0.8)	353 (100.0)

<표23. 가해자 성별 및 연령별 구분>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318건(89.3%)으로 가장 높았고, 성인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23건(6.8%)이나 되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는 성별 권력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지닌 위치 등에 따른 위계적인 특성이 반영된 피해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남성 가해자도 4건(1.1%)이 있으나, 피해자는 모두 같은 청소년으로 같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겪은 피해였다.

<표23. 가해자 성별 및 연령별 구분>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미상	총계
여	23 (6.5)	-	-	23 (6.5)
남	318 (89.3)	4 (1.1)	3 (0.8)	325 (91.3)
미상	5 (1.4)	-	-	5 (1.4)
총계	346 (98.0)	4 (1.1)	3 (0.8)	353 (100.0)

3-2. 피해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

<표24. 피해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직장 내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지 살펴보았

다. 가해자가 고용주인 경우에는 32건(9.1%), 상사는 74건 (21.0%), 고객 16건 (4.5%) 거래처 6건(1.7%), 기타 관계 7건(2.0%)등 각 관계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가 동료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가 21건 (5.6%)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이 모두 각 1건(0.3%)으로 나타났다.

<표24. 피해유형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피해유형		관계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계
강간 및 강간미수	강간 (유사강간포함)		8 (2.3)	9 (2.5)	5 (1.4)	1 (0.3)	1 (0.3)	-	1 (0.3)	25 (7.1)
	준강간		5 (1.4)	13 (3.7)	6 (1.7)	-	2 (0.6)	-	1 (0.3)	27 (7.6)
	강간미수		2 (0.6)	1 (0.3)	-	-		-	1 (0.3)	4 (1.1)
강제추행	강제추행		32 (9.1)	74 (21.0)	21 (5.9)	1 (0.3)	16 (4.5)	6 (1.7)	7 (2.0)	157 (44.5)
	준강제추행		-	1 (0.3)	2 (0.6)	-		-	1 (0.3)	4 (1.1)
성희롱			14 (4.0)	51 (14.4)	23 (6.5)	1 (0.3)	10 (2.8)	-	5 (1.4)	104 (29.5)
통신매체이용음란			1 (0.3)	2 (0.6)	1 (0.3)	-	2 (0.6)	1 (0.3)	1 (0.3)	8 (2.3)
카메라이용촬영			-	-	2 (0.6)	-	3 (0.8)	-	2 (0.6)	7 (2.0)
스토킹			1 (0.3)	-	1 (0.3)	-	2 (0.6)	-	1 (0.3)	5 (1.4)
미상			1 (0.3)	3 (0.8)	5 (1.4)	-	1 (0.3)	-	2 (0.6)	12 (3.4)
성폭력 계			64	154	66	3 (0.8)	37	7	22	353

3-3. 중복피해 (중복응답)

<표 25. 중복피해>는 성폭력 피해 당시 중복으로 있었던 다른 피해를 분석한 것으로 중복체크하였다. 직장 내 성폭력 사안에서 두드러지는 피해는 성추행이 172건 및 성희롱 피해가 137건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술을 매개로 한 피해가 30건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관계에서 식사나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비롯된 상황에서의 추행이나 성희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술을 매개로 한 경우, 강간에 이르는 피해도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공론화하면서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 등을 취하는 경우도 11건 있었다.

<표25. 중복피해>

<단위: 건(%)>

미상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기타	술	약물	미수	협박	폭행	모욕	무고	명예훼손	역고소
11	57	172	137	8	9	11	3	30	2	2	6	2	5	1	5	5

3-4. 상담 이전 대응 방안 (중복응답)

<표 26. 상담 이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했다는 상담은 총 46건 (21.5%)이었고, 직장 내에 알려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한 경우가 100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경우도 31건(14.5%)이었다.

<표26. 상담 이전 대응 방안>

<단위: 건(%)>

의료 기관	법적 대응	타기관			주변인 도움요청	사과 요구	기타
		단체	정부기관	기타			
5 (2.3)	46 (21.5)	4 (1.9)	2 (0.9)	1 (0.5)	100 (46.7)	31 (14.5)	25 (11.7)

4. 역고소 상담 세부 통계 및 분석

미투 운동으로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선택이 확장된 반면, 이에 대한 가해자들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되었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상담비율이 늘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고소 상담 세부 통계의 분석 대상은 총 43건으로 역고소로 실제 고소에 이른 경우와 역고소 위협 및 협박을 겪은 사례로 한정하였다.

4-1. 피해 유형별 피해자 연령

<표27. 피해 유형별 피해자 연령>은 역고소를 호소하는 상담 중 피해유형별 피해자 연령을 살펴본 것이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역고소 피해를 겪는 상담이 11건(25.6%)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일 때 겪은 강제추행 피해를 사건화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를 겪는 사례도 각각 2건(4.7%), 1건(2.3%)이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 피해를 사건화한 이후 겪는 역고소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언어적 성희롱 피해의 경우 가해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소속된 집단에서의 징계 수위가 높다고 가해자가 여기는 경우, 또는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가해자 스스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경우 등이었다.

<표27. 피해 유형별 피해자 연령>

<단위: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강간 (유사강간포함)	8 (18.6)	1 (2.3)	-	9 (20.9)
준강간	4 (9.3)	-	-	4 (9.3)
강제추행	7 (16.3)	2 (4.7)	1 (2.3)	10 (23.3)
성희롱	11 (25.6)	1 (2.3)	-	12 (27.9)
통신매체이용음란	2 (4.7)	-	-	2 (4.7)
카메라이용촬영	2 (4.7)	1 (2.3)	-	3 (7.0)
스토킹	1 (2.3)	-	-	1 (2.3)
미상	1 (2.3)	1 (2.3)	-	2 (4.7)
성폭력 계	36 (83.7)	6 (14.0)	1 (2.3)	43 (100.0)

4-2. 피해 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

<표28. 피해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역고소를 겪는 경우가 13건 (30.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속된 직장 내에서의 징계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는 사안에 있어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가해자가 역고소 등의 대응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학교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상담이 4건(9.3%)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특히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학교 내부자료에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명시되고 징계가 확정된 경우 겪게 될 문제를 생각하여 더 적극적으로 역고소를 남용하는 사례 등이었다.

<표28. 피해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연령별 관계	친인척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학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미상	총계
성인 (20세 이상)	-	13 (30.2)	5 (11.6)	3 (7.0)	1 (2.3)	6 (14.0)	1 (2.3)	2 (4.7)	2 (4.7)	3 (7.0)	36 (83.7)
청소년 (19세-14세)	-	-	-	1 (2.3)	1 (2.3)	4 (9.3)	-	-	-	-	6 (14.0)
어린이 (13세-8세)	1 (2.3)	-	-	-	-	-	-	-	-	-	1 (2.3)
합계	1 (2.3)	13 (30.2)	5 (11.6)	4 (9.3)	2 (4.7)	10 (23.3)	1 (2.3)	1 (2.3)	2 (4.7)	3 (7.0)	43 (100.0)

4-3. 피해자 요구

<표29. 피해자 요구>는 역고소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분석한 표이다. 실제 역고소에 이르거나 역고소 위협을 겪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지원요구가 가장 많은 응답 36건(66.7)을 보였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 위협을 겪는 있어 의료지원이나 피해보상협의 등의 방식 등의 지원요구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지원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29. 피해자 요구>

<단위: 건(%)>

법적지원		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소속조직 대응	개인적대응	피해보상 협의	성폭력 외 사건의 해결	합계
형사	민사							
36 (66.7)	1 (1.9)	-	7(13.0)	3(5.6)	5(9.3)	-	2(3.7)	5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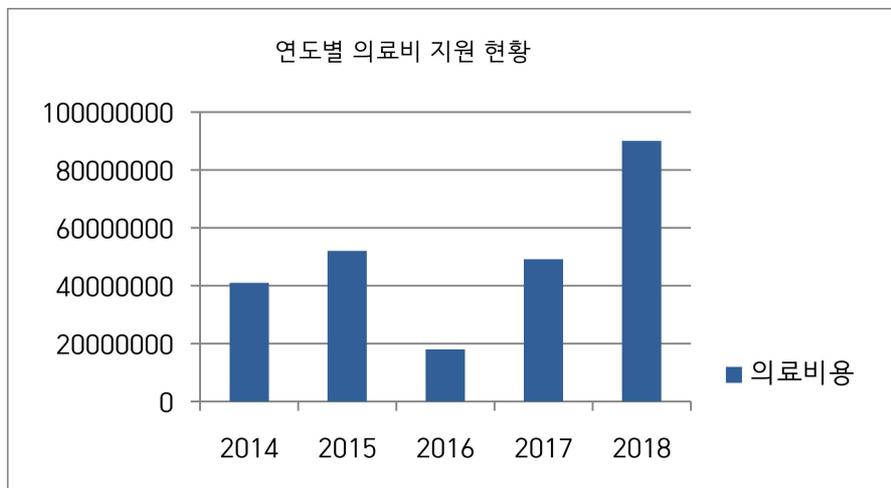
III. 2018년 의료비 지원 현황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를 집행하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2018년에는 79명을 대상으로 총 90,000,000원의 의료비가 지원되었다.

1.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최근 5개년)

<그림1. 연도별 의료비 지원현황>을 통해 최근 5개년 지원 현황을 고려하면, 2018년은 특히 예년보다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었다. 정부의 의료비 제도 및 시스템의 변화, 미투(Me Too)로 인한 사건 지원 증가를 그 이유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까지는 연도별 정해진 의료비용 안에서 구청에 분기별로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지만, 2018년부터는 정해진 의료비용 없이 월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급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미투(Me Too) 이후 많은 사건을 지원하며 의료비 지원 건수도 이에 따라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연도별 의료비 지원현황>



2. 의료 기관별 지원 규모

<표29. 의료기관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은 신경정신과/의원 지원이 37.7%,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원이 60.8%였다. 그 외 산부인과와 약국 지원은 각각 0.1%, 1.4%로 약간 있었다. 한편, 2018년은 신경정신과/의원 지원이 30.5%, 전문상담기관 지원이 69.2%로 2017년에 비해 전문상담기관의 지원 규모가 약 8.4%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비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신경정신과보다 의료비용 단위가 큰 전문상담기관의 지원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9. 의료기관별 지원 규모>

<단위: 건(%)>

의료기관 분류	2017		2018	
	지급 건수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액
산부인과	1 (0.1)	53,300	4 (0.3)	1,236,530
신경정신과/의원	299 (37.7)	10,570,950	424 (30.5)	5,683,286
전문상담기관	482 (60.8)	38,074,330	962 (69.2)	83,080,184
일반진료기관	0	0	0	0

약국	11 (1.4)	146,310	0	0
총 8개 기관	793 (100)	48,844,890	1,390 (100)	90,000,000

3. 2018년 피해 유형별 의료비 지원 현황

<표30. 2018년 피해유형별 의료비 지원현황>은 2018년 피해 유형별 의료비 지원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 중 강제추행의 비율이 40.4%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건의 대표 유형은 특수강간, 준강간 포함하여 강간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심리적인 외상을 겪을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강간 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주변으로부터의 권유로 인해 의료기관에 연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0. 2018년 피해유형별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건수(%)
강간 (58.2)	특수강간	3 (3.8)
	강간	30 (38)
	준강간	13 (16.5)
강제추행 (32.9)	강제추행	25 (31.6)
	준강제추행	1 (1.3)
성희롱		1 (1.3)
카메라이용촬영		4 (5)
스토킹		2 (2.5)
총		79 (100)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표31.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상사에 의한 피해가 15건 (19%)으로 가장 높았고 친부가 7건(9%)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어린이, 아동 시기에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 연계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해 경과가 10년 이상인 피해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연결된다.

<표 3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건(%)>

피해자-가해자 관계		건수
직장	고용주	2
	상사	15
	동료	2
	고객	2

	서비스 제공자	3	
	직장 내 기타	1	
학교 및 학원	대학·대학원	동급생	2
		후배	1
		선배	1
		대학원 교사	1
	초중고	학교 교사	2
		동급생	1
	학원	교사	1
원장		1	
친족 및 혈족	친부		7
	의부		1
	친형제		2
	사촌		1
	친족 외 인척		2
친밀한 관계	현 데이트상대	4	
	전 데이트상대	4	
주변인의 지인		6	
소개		2	
동네 사람		1	
동호회		3	
기타		5	
미상		2	
모르는 사람		4	
총		79	

5. 1인당 지출 의료비 규모 및 피해 경과 정도

-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은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원칙으로 함. 단, 6개월(3백만 원) 초과 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상담소 등에서 주치의 소견,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 가능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함
단,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치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피해 발생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2018년 의료비 지원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5-1. 1인당 누적 의료비 지원 규모

<표32. 1인당 누적 의료비 지원규모>는 2018년에 지원하는 79명을 대상으로 누적 의료비를 살펴본 통계다. 79명 대상자 중 49명은 2018년에 신규 지원을 받았고 30명은 1~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표에서 3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받은 사람은 8명으로 10%다.

운영지침 상 원칙적으로 의료비가 6개월 이내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원 기간이 1년을 경과한 대상자가 30명(38%)이라는 것은 의료비 지원 기간에 관한 지침이 재고되어야 함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10% 정도 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 긴 치유 기간이 필요하고 치료의 비용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표 32. 1인당 누적 의료비 지원 규모>

1인당 누적 의료비 규모	건수(%)
50만원 미만	9 (1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1 (2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 (3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 (20)
300만원 이상	8 (10)
총	79 (100)

<단위: 건(%)>

5-2. 피해 경과 정도

<표33. 피해 경과 정도>는 성폭력 피해로부터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의료지원을 받고있는지 분석한 표이다. 운영지침 상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의 피해 경과 정도를 보면 3년 이상이 39명으로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10년 이상 전에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가 22명(27.8%)으로 상당한 편이다. 이는 어린 시절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과거의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고 치유와 회복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 피해 경과 정도>

<단위: 건(%)>

피해 경과 정도	건수(%)
1년 미만	18 (22.8)
1년 이상 ~ 3년 미만	22 (27.8)
3년 이상 ~ 5년 미만	12 (15.2)
5년 이상 ~ 10년 미만	5 (6.3)
10년 이상	22 (27.8)
총	79

IV. 소결

□ 2018년도에는 #미투운동으로 한국사회 내 성폭력 피해 고발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다. 언론 보도나 주변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된 피해자들은 이전에 미처 고발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꺼내놓기 시작하였다.

#미투상담 세부분석을 통해 10년 이상 경과된 피해에 대한 상담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전에는 미처 외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미투 운동을 통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피해 사실을 비로소 꺼내놓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2018년 의료비 지원 규모에도 반영되었다. 2018년에는 예년에 비해 두 배이상 증가된 총 9천만원의 규모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단일 단체에서 지출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이고, 이로 인한 행정업무도 늘어나 업무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처럼 지출규모가 늘어나게 된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피해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27.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통해 성폭력 피해가 남기는 흔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018년 세부통계 분석으로는 #미투상담,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역고소를 분석하였다. 이는 2018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성폭력 관련 이슈들로 2019년도에도 지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키워드이다.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피해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피해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해자들이 범의를 가지고 술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의 경우, 남성피해자도 9.1%에 해당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폭력은 젠더 위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역고소 피해의 경우, 원 피해가 성희롱일 때 역고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소 경미한 성폭력이라고 여겨지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반격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처벌이 강화될수록 가해자들이 더욱더 강력한 방어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 2018년 전체 상담 통계에서 남성 피해자는 전체 성폭력상담 건수 대비 6.5%(77건)에 해당된다. 남성 피해자의 상담은 점진적으로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는데(2017년 통계 66건 5.2%, 2016년 통계 81건 6.1%), 이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피해를 고발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한국사회는 이제 #미투운동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혼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지지자가 함께 연대하여 불평등한 젠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2019년에 되기를 기대한다.